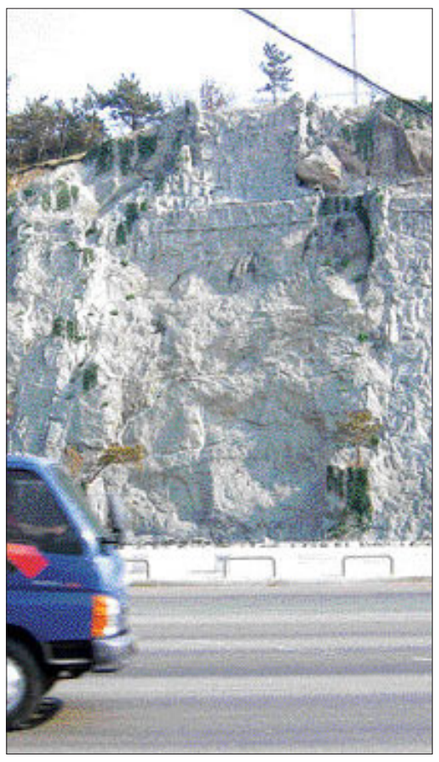
목포 인공폭포 가동중단

전기료 등 부담 준공 3개월도 안돼 멈춰 … '즉흥행정' 비난



2개월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돼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목포 옥암동 인공폭포.

목포시가 인공폭포를 설치했다가 3개월도 못돼 가동을 중단해 '즉흥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9월 30일 옥암동 부흥산 공원 끝자락에 인공 폭포를 설치했다.

목포 관문에 위치해 있는 부흥산 인공폭포는 준공이후 화려한 야간 조명으로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시는 동절기 동파 우려로 가동을 멈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폭포를 가동한 2개월 15일 동안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포함해 약 3천여만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폭포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 산정 등 면밀한 분석없이 즉흥적으로 폭포를 가동했다가 비용 과다로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 의원들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주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가 인공 폭포 설치에 18억원을 투입하고 매달 수도료와 전기료로 1천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경업자 최모씨는 "수익사업이 아닐 경우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율성을 얻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상 고온인 올 겨울에 동파를 이유로 가동을 멈춘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배관이 지하가 아닌 바위틈에 시공됐고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이 차가워 동파 위험성이 높다"면서 "타 지역도 동절기에는 인공 폭포를 가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입암천 맑은 물 흐른다

148억 투입 정비사업 분수대·조경 등 설치

목포 입암천 1단계 정비사업이 마무리되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목포시는 지난 1999년부터 연동(원둑)에서 삼향동 입암교까지 2천385m에 이르는 입암천에 총 148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호안정비작업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맑은 물을 상류에서 방류하고 있다.

시는 2단계로 올 상반기 중에 산책로를 확장하고 하상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수대 2개소와 교량경관 조명 설치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는 부흥동 삼향천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100억여원을 들여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장흥에 '살기좋은 느린세상'

장평면 우산지구 2009년까지 체험학습장 등 건설

2005년부터 장평 '슬로우월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렁이생태학습장.

장흥군 장평면 우산지구에 오는 2009년까지 '살기 좋은 느린 세상(슬로우 월드)'이 건설된다.

이 '슬로우 월드'는 행정자치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22억원의 국·도비가 지원된다.

장흥군은 '슬로우 월드지구'에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지렁이 생태체험학습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가족이 안전하게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실외 공간 확충에 나선다. 또 숲과 둠벙 속의 생물자원이나 개울물의 가재·물고기 관찰이 가능한 가족단위 생태경관 공원을 만들고 친환경 쌈채소와 버섯, 더덕, 옻나무, 뽕나무, 고사리 등의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내에 귀농·은퇴자 마을과 요가원, 한방치유센터도 조성하게 된다. 이밖에 한의원과 연계한 건강치유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우산 슬로우 월드 지구에는 지난 2005년부터 지렁이생태학습장이 개설돼 있고 가축 분을 지렁이 먹이로 활용한 지렁이사육장 친환경 채소재배단지가 조성돼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완도 금당면 주민들 "수협지점 꼭 존치를"

완도군 수협이 경영난을 이유로 금당면 수협지점을 폐쇄할 방침이어서 금당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2006년 12월 13일자 13면 보도〉

금당면 주민 90여 명은 지난 2일 완도군 수협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금당 수협지점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부실경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수협중앙회 대표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완도군 수협은 최근 임직원 감축은 물론 금당면·생일면·넙도 등 3개 지역 수협지점을 없애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중 금당면의 경우 수년전 부터 완도항에서 금당면까지 운항하던 정기 여객선이 폐지돼 주민들이 완도읍에 나가 행정업무를 처리 하려면 장흥군과 강진군 등을 거쳐야 해 3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협지점까지 없어지면 생활불편이 크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주택 금당면 번영회장은 "교통 등 소외지역인 금당지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금당면 수협지점은 직원수가 4~5명에 불과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사업이 부실해서 지점을 없애기로 했다는 수협 방침 역시 그동안 수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청와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금당지점 존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당면 등 3개 지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새얼굴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적극 앞장"

문명규 농협 여수시지부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문명규(54)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장은 "경쟁력 있는 특산품 개발과 팜 스테이 등 농촌관광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이 고향인 문지부장은 광주상고, 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3년 농협에 입사, 여수시지부 부지부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점장 등을 지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화순군 10대 농특산물 개발 주력"

정종순 농협 화순군지부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정종순(52) 농협 화순군지부장은 "화순군 대표 브랜드 및 10대 농특산물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 출신으로 농협대학을 졸업한 정 지부장은 지난 1978년 농협에 입사, 지역본부 광산지점장, 장흥군 지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한혜옥씨와 2녀, 취미는 등산.

/화순=조성수기자 css@

'진도의 섬' 책으로 냈다

조도 등 230개 수록

진도군이 최근 영화 촬영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섬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진도의 섬' 책자 5천부를 발간했다. 〈사진〉

'진도의 섬' 책자에는 가사군도를 비롯한 조도 6군도와 접도, 모도 등 230여개 섬 정보가 총 27면에 수록됐으며 관광공사와 진도 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 배부된다.

진도군은 이 책자를 관광 홍보는 물론 문화 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보고 싶은 섬' 등 관련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콩 종자 신청하세요"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소장 민주석)는 올해 재배할 콩 종자 228.6t에 대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3월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받을 콩 종자는 메주용인 태광콩(172.8t), 장원콩(26.8t) 2개 품종과 콩나물용인 풍산나물콩(29t) 1개 품종 등으로 4월중에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된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인하된 5kg 1가마당 9천200원에 판매된다. 문의 (061)323-0702.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